

# 오보일기五步一記,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적곤 하셨어요

“지난 해 봄, YTN자막에 법정 스님께서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자막이 흐르더군요. 어이쿠, 스님께서 위중하시구나 싶어 알아보니까 건강하시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백련불교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일성이었다.

법정 스님은 따르던 문화소녀나 불자 여행자들이 출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내면 성철 스님 따님인 불필스님에게 보냈다. 그 인연으로 출가한 불필스님 상좌 가운데 한 분이 때마침 연락이 왔다. 법정 스님 병환이 깊으신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님은 문병을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원택 스님은 그렇지 않아도 병문안을 가겠다고 하니 곧 퇴원하신다면서 오지 말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그 스님이 당시 길상사 주지 덕현스님에게 다리를 놓아 병문안을 드렸다. 원택 스님이나, 오랜만이라고 말씀을 꺼낸 법정 스님, 불필스님에게 내가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산다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아픈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간 비구니스님에게 불필스님을 잘 모시라고 일렀다. “그날따라 말씀이 또 몇몇몇하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마음 같아선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다 나오고 싶었지만, 노쇠한 모습이 역력하셔서 인사만 드리고 싶어 분이 채 못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 법정은 펜대를 꽂곳이 세우는 사람

법정 스님이 해인사에 강주로 계실 때,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방장이 되시고 나서, 3000배를 시켰다. 한 여름, 대학생 몇 백 명이 법당에서 절을 하느라 흘린 땀으로 남·여학생들 옷이 몸에 달라붙어 보기 민망스러웠다. 법정 스님은 예배(禮拜)간절함이 우리나라 공손하고 진중해야 하는데 기쁜 숨을 몰아쉬면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게 하는 절을 비판하고, 진정한 참회와 예배가 지닌 뜻을 되새기는 글을 ‘굴신운동’이란 제목으로 1968년 불교신문에 실었다. 성철 스님은 그 글을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내색도 없었고, 주지스님도 별말씀 없었는데, 열기 넘치는 젊은 스님들이 법정 스님이 바깥나들이하신 뒤 스님 방에 있던 물건을 치워버렸다. 두말없이 해인사를 떠난 법정 스님. 뒷날 봉은사에서 만난 성철 스님 상좌인 원정스님을 흔연히 대해 주며, 잘못도 감싸주었다. 성철 스님 역시 법정 스님을 일러 “법정은 펜대를 꽂곳이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다.

성철 스님이 떠나시고 오랜 세월 스승 뜻을 잇는 일에 동분서주하던 원택 스님은 몇 해 전,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뎠던 큰 사고를 당해 오래도록 병원살이를 했다. 병서를 읽고 일어나면서 문득, 오래 전 큰스님 심부름으로 <본지풍광>과 <선문정로> 원고 윤문을 부탁하러 불일암으로 법정 스님을 찾아가셨던 인연이 지금까지 삶을 이끌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큰스님 유지를 받드는 일을 한다며 스님 그

늘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모든 바탕이, 그날 불일암 심부름에서 결정되어 버렸다는 생각이예요.”

성철 스님은 원택 스님에게 우리나라에서 한글은 법정 스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까 윤문(潤文) 솜씨 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법정 스님 뜻을 받들라고 일렀다. “법정 스님께서 원고를 보시더니만 ‘스님께서 소중한 당신 책을 내게 보라고 보내셨으니까, 어른을 모시는 뜻에서 살펴봐. 어미나 나까지도 어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내 글처럼 쉽사리 고치지는 않겠다.’면서 같이 원고를 보자고 하셨어요.” 한 열흘쯤 걸려서 초벌 원고를 끝내고 나서 법정 스님이 이레선 안 되겠다고 말씀했다. 2~30분 간격으로 찾아오는 불자들 때문에 집중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 그래서 서울 유스호텔에서 법정 스님을 모시고 두어 달 만에 원고 검토를 끝냈다. 집중해서 며칠, 눈이 빠지게 글을 들여다보던 법정 스님은 바람이나 좀 쐬자며 가끔 바깥나들이를 했다. “스님을 모시고 나가면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주머니에서 메모지와 연필을 꺼내서 뭘 적고, 말씀하시다가도 또 적곤 하셨어요. 마치 삼보일배(三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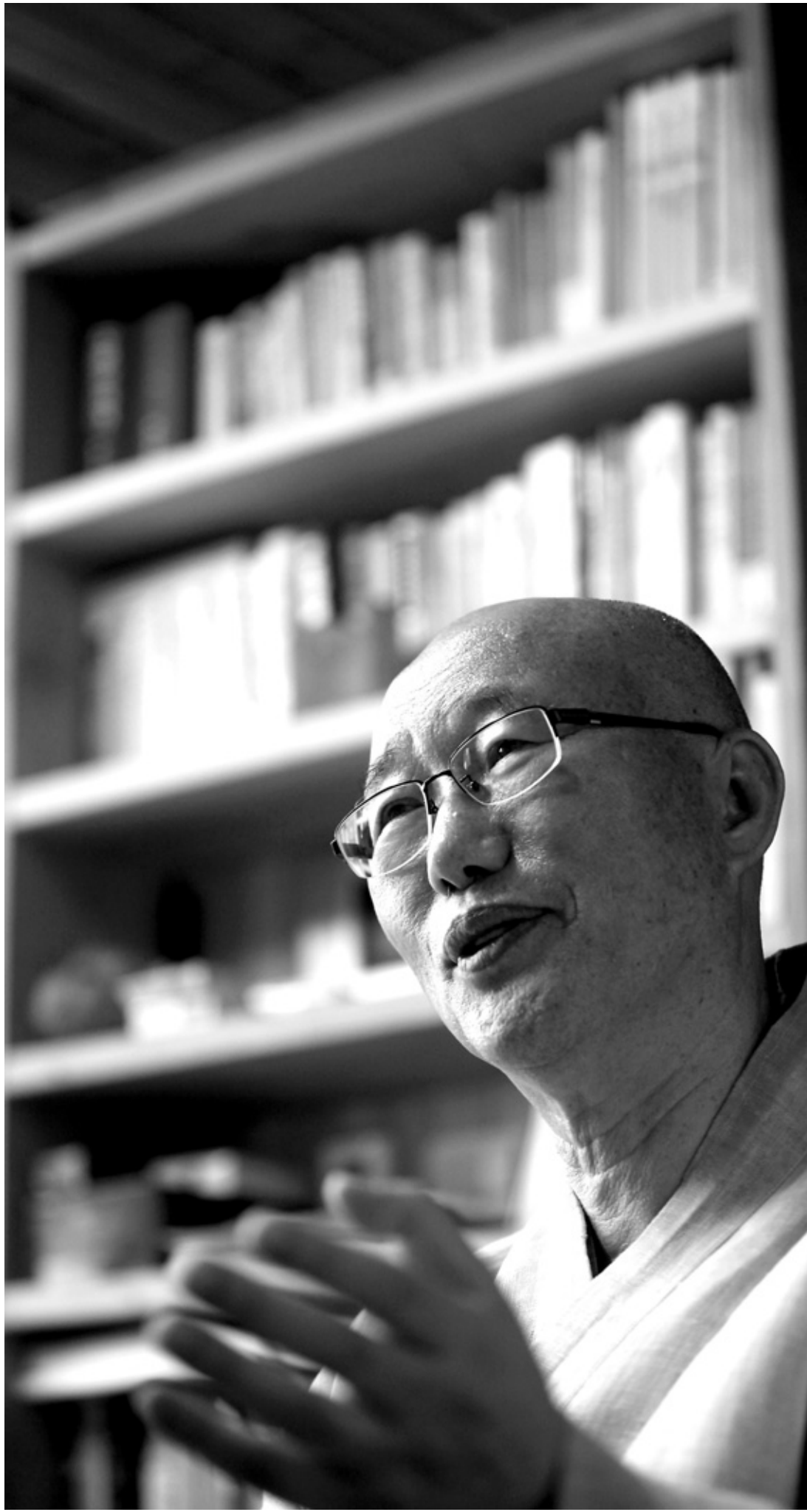
운문하기를 삼보일배하듯 경건한 법정 스님 큰스님 빨간펜에 ‘오자도 활자’ 라며 웃음

조계종 체면 세워준다 늘 말씀 성철 큰스님도 글하면 ‘법정’

一拜)하듯이 오보일기(五步一記)를 하셨죠. 방안에 서 글을 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다니시면 어김없이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적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한글과 한자를 섞은 퓨전 사자성어가 ‘적자生存’이다.

책을 돈 받고 팔아? 책은 법공양이야. 이눔아!

윤문을 마치고 출판을 준비하면서 법정 스님은 우리 불교 출판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까닭은 법공양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스님 책이라도 정가를 붙여서 시중에 내지 않고 법공양만 하고 마니까, 책이 나와도 절 안에서만 돌다가 이내 사라지고 만다. 성철 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법공양을 하지 마시고 시중서점에 내 놓도록 하라고 일렀다. “스님 책을 정가 붙여 서점에 내놔야 만이 다른 스님들도 용기를 내어 그 뒤를 따르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역정을 내시더라도 불교계 앞날을 위해 원택 스님이 꼭 성취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철 스님은 법정 스님 걱정대로 “책을 돈 받고 팔아? 책은 법공양이야. 이눔아! 우리 절집 전통을 무시해? 책은 내 돈으로 적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이눔아!



그런데 내 책에다가 정가를 붙여? 이 나쁜 놈!”하고 퍼부어졌다. 그렇게 한참 꾸지람을 듣고 나서 법정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다. 다 듣고 난 법정 스님은 법공양이 가장 좋긴 한데, 책 낼 때마다 누군가는 돈을 내서 적어야 한다. 그런데 정가를 붙여서 서점에 내 보내서 안 팔리면 절판이지만, 잘 팔리면 심년이고 백년이고 팔리는 날까지 그 책이 살아있지 않느냐. 독자들이 자주 찾으면 무한재생산이 된다며 다시 잘 말씀드려보라고 했다. 고지식한 원택 스님은 “법정 스님 말씀이 법공양을 하면 그때 반짝하고 사라질 뿐이지만, 가격붙인 책이 잘 나가면 영원히 물이 샘 솟는 샘물처럼 된답니다.”고 말씀드렸다. 처음엔 ‘시끄러워 이눔아!’ 하시더니, 해거름에 ‘법정이 진짜 그러냐?’ 하고 물으셨다. “큰스님께서 법정 스님이 우리 조계종 체면을 세워주고 산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 믿음이 계시기에 당신 뜻을 꺾고 허락 하셨지요. 그랬으니까 아직까지도 스님 글이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씨 한 톨이 땅에 떨어지 썩는 일이 되풀이되면 수없이 늘어나지만, 그대로 있으면 한 톨도 머물 뿐이다.

그렇게 <선문정로>와 <본지풍광>이 세상 빛을 봤다. “스님께서 갖다 드리니 ‘오자識字 없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수도 없이 보시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없다고 했죠. 두 시간도 못 돼 앉아서 문을 여니까 책 두 권이 날아와요. 페이지마다 빨간펜 표시해 놓으셨더라고요.” 다급해진 원택 스님은 법정 스님께 전화를 드렸다. 법정 스님 대답이 걸작이다. 그러니까 ‘살 활 자, 활자活字가 아니냐. 내 책도 적어도 3쇄는 내야 오자를 다 잡는다면서 한가하게 웃으셨다. “제가 첫판에 만권을 찍자고 말씀드렸더니, 법정 스님께서 오자가 나오니까 처음에 한 2,000권만 찍으라고 하셨어요. 2,000권 찍었으니까 망정이지...”

책 내는 일을 거들었던 힘이 운명 줄기를 이뤘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제 팔자도 거기서 끝일 텐데...” 열반에 드신 구산스님 49세에 참석했던 원택 스님,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탔다. 마침 옆자리에 구산스님 상좌 현호 스님이 앉았다. 원택 스님은 현호 스님에게 큰스님 사자로서, 스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무엇이 가장 섭섭하고 아쉬웠는지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때 현호 스님은 스님이 살아계실 적에 어둠을 못 내드린 일이 얼마나 한이 되는지 모른다. 내 방 네모 께악 안에 스님 법문 테이프나 원고가 그득한데, 살아계실 때 <Nine Mountain>이란 영어로 된 책을 내고는 정작 한글로 된 책은 한 권도 내지 못했다.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책을 내야겠다고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걱정이 앞서서 글이 써지지 않는다. 긴급경 강설 예를 든다면 학자들이 번역한 대로 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큰스님께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이 구절은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새롭게 해석을 하신 부분도 많더라. 법상에서 들 때는 우리 스님이 어렵하시지 했는데, 막상 스

**선어사전**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향기를 온전히 전해주는 선어 해설!

## 禪語事典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선의 근본 뜻을 이해하고 선문화가 가지는 교결深淵한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선 입문서!

적정寂靜하면서도 활발활한 선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선지해자들의 필독서!

선어 940여 개, 등사 및 선어록 80여 개 수록!

해원 편저 | 사륙판 양장 | 512쪽 | 값 2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림빌딩 3층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시는 33분 관세음보살님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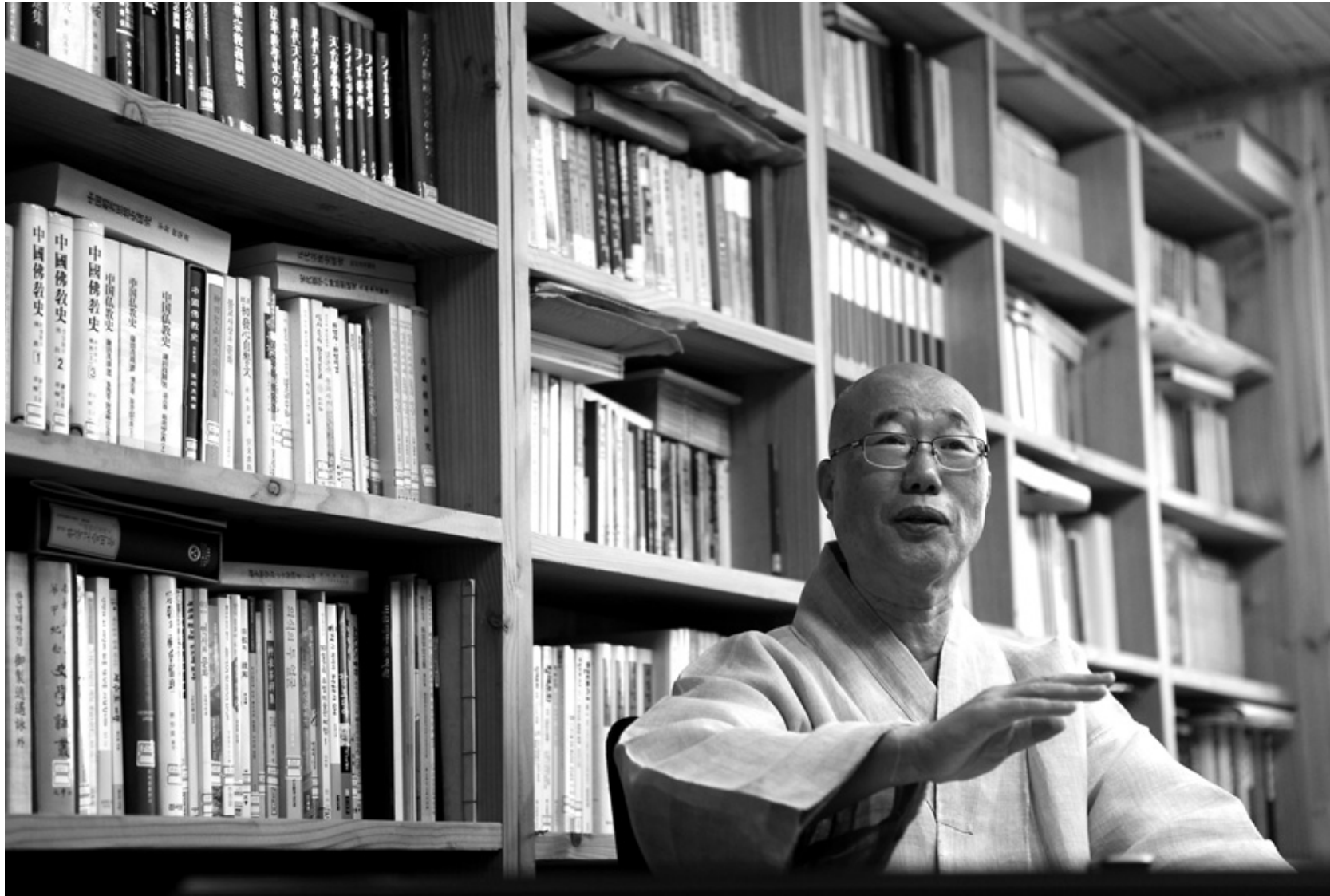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33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루셨는가? 항상 중생들 곁에 계시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유래와 영험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그려 모신 33관세음보살도! 중생들의 어려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고난으로부터 구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성스럽고 친근한 모습!

방경일 글 · 남종진 그림 | 국판 변형 | 컬러 | 256쪽 | 값 13,000원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남이 떠나시고 나니 후회라도 시비에 휘말리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때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백일 법문을 녹취해놓고 있었다. "저 혼자 보려고 그랬어요. 책을 내려는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었는데, 현호 스님 말씀을 듣고는 '책을 내 드러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고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선문정로>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돈오돈수·돈오점수 논쟁이 일었다. 궁리 끝에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께 가지고 계시는 책 가운데 돈오돈수에 관한 책을 몇 십 권 골라 번역해내자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선어록 <선림고경총서> 37권이다.

"법정 스님을 의지해서 <선문정로>나 <본지풍광>을 내보지 않았더라면, 스님 살아생전에 책을 내드리지 못한 일이 가장 안타까웠다는 현호 스님 말씀을 들었을 때나, 돈오돈수·돈오점수 논쟁이 일어났을 때 큰스님께 선어록을 번역해 내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선뜻 책을 내자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요. 큰스님 책을 내는 일을 거들었던 그 힘이, 뒤에 큰스님 곁에 저를 있게 만든 큰 운명 줄기를 이뤘습니다." <선림고경총서> 37권, <성철 스님 범어집> 11권을 다 내고 1993년 10월 8일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같은 해 11월 4일,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드셨다.

원택 스님은 법정 스님 떠나시고 난 뒤, 평생 무소유를 말씀한 어른이니 뒷사람들은 무소유 정신이 무엇인지 천명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스님 정신을 따른다면서 자취를 지우는 데만 열

무소유 정신이 무엇인지 천명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

법공양 맡곤 없는 큰스님 설득해 정가 붙여 법정 스님 인연 바탕, 큰스님사상 선양으로

안이 되어있다고 일침을 놓는다. 정채봉 동화작가 문학관과 이어지는 정채봉 길에 있는데 순천사에서 법정 스님 무소유 길을 만들어서 그 길과 연결시켰다고 했다. 송광사에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원택 스님. 스님을 추모하는 정이 있을 때 뭐든지 하겠다면 빨리빨리 해야지. 다 식은 다음에 하려고 들어보라. 관청이고 신도들이고 누가 도와주나. 어찌 그렇게 현실감이 없느냐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해도, 원택이 니나 하라는 핀잔만 잔뜩 들었다.

"저희 큰스님 가신 뒤에도 좋은 가면 그만인데 뭐 하러 자취를 남기느냐. 참 도인이 떠나고 나면 자취 없으므로 선사 가풍이 살아나지.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널브러뜨려 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없다고 아무 것도 안 하면 뒷날 무엇으로 스님을 기릴 수 있었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리탑을 세우고 생가를 복원하고, 스님 사상을 글로 옮겨 남기지 않다면 어땠을까요? 모자라는 대로 스님 사상 학술회의를 20년 넘게 이어온 까닭도 스님을 모시는 큰 기

동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스님 탄신(誕辰) 100주년을 맞아 올해 3월부터 석 달에 한 차례씩 학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스님 열반 20주기에 3년 동안 스님사상을 정리를 해보려는 생각으로."

세 해 동안 이어지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은 해마다 3월, 5월, 9월, 11월 한 해에 네 번, 모두 열두 차례 열린다. 올해 포럼 주제는 '퇴옹성철과 현대 한국불교', 내년 주제는 '퇴옹성철과 돈오돈수(頓悟頓修)', 열반 20주기를 맞는 2013년 주제는 '퇴옹성철과 한국불교 미래'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불교를 일으켜 세운 큰어른 탄신 100주년 행사가 중단 차원에서 치러지지 못하고 문중에서 다루는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 그래도 원택 스님은 늘 한결같은, 한결같은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디딘다. 스승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행사 준비로 바쁜 가운데 성철 스님 백일 법문을 쉬운 우리말로 다시 풀어쓰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 말씀을 모아 전했기에, 열반에 드신 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소크라테스 가르침 바탕에서 자기성찰을 이룰 수 있음도 플라톤이 스승 사상을 적바림해 남겼기 때문이고, 육조 혜능스님 말씀에서 선불교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까닭 또한 뒷사람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 누굴 탓하고 원망하는가

며칠 전 소생하기 어렵다는 암 환자들의 인터뷰를 보았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하여 병원 문을 나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 무거운 삶의 여장을 풀어 놓았다. 그리고 나무와 대화를 하고 연약한 초목과 속삭였으며 계곡의 물 소리에 취해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윤활유를 듬뿍 부어놓은 듯 한 하늘가에 덧없이 흘러가는 물줄기에서 건강했던 날의 추억이 구름 보다 몇 배나 빠르게 맴돌고 갔다. 철따라 같이있는 산색은 다름이 없다는 이치도 재차 확인했다.

아마 그들은 긍정의 철학을 자연에서 몸소 늦게나마 체득한 듯하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애쓰다 보면 육신에 무리가 가기 마련이고 정신세계에도 균형을 잃기 마련이다. 몸속의 휴식 없는 세포는 자신의 위치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리듬이 깨져 질서의 파괴가 오기 마련이다. 평소 에 우리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있는가 하면 불만의 에너지, 부정의 에너지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병에 걸리기가 쉽다.

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물체를 자석이 라고 한다. 이 자석은 내구성으로 분류하면 영구자석과 일시자석으로 나누어진다. 천연적으로는 자철광(磁鐵鑛)이 있다. 인공적으로는 강철을 자기화하여 만들기도 한다. 어느 시기가 되면 인공적인 자석은 그 기능을 다하고 나면 별반 쓸모가 없어지고 만다.

근기(根柢)라는 말이 있다. 범어로 Indriya 라고 한다. 근이란 뿌리를 말한다.

뿌리는 생명의 근원으로 줄기와 잎 열매를 지탱해 주는 원천이 된다. 만약 뿌리가 부실하면 잎과 열매는 순간에 기력을 잃고 말 것이다. 인드리아는 Indra에서 나온 말이다. 인드라는 우주를 창조한 브라마와 우주를 유지시키는 비쉬누 그리고 창조된 우주를 파괴시키는 시바를 거느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은 근기가 없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 걱정이라고 염려하기도 한다.

반면에 그는 상근기로서 능히 그 일을 거뜬히 해낼 것이라고도 한다.

소크라테스는 "배운다는 것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러기에 과거세에 익힌 글이 신속하게 터득되는 사람도 있고 익혔던 기술이 쉬 손에 익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 검술을 좋아하는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용을 잡을 수 있다는 도룡검법(屠龍劍法)을 가르치는 도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천리길을

멀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검술을 익혔다. 이제는 다 익혔다고 만면에 흡족한 웃음을 머금고 익힌 검법을 시험하고자 용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용을 볼 수가 없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혹시 용을 본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글쎄요, 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본적은 없소이다." 결국 그는 도룡검법을 한 번도 써 먹을 수가 없었다.

세상일이란 무엇이든 배우고 익히면 다 될 것 같지만 영 판단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월을 잃고 헛되이 힘만 소진하는 경우가 되고 마는 일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불교에서는 영보종생이란 말을 흔히 쓰고 있다. 영(業)이란 행위를 말하는데 누가 가져다준 다거나 떠맡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짓는 행위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상황을 탓할 일도 전혀 아니다. 오직 자기가 짓고 자기가 과보를 받을 뿐이다. 어떤 이가 선업을 지녔는데도 이렇게 찌들리게 살고 있는 현실에 답답해하는 경우를 본다.

근기가 부실하면 열매도 없다

헛된 힘 쏟기보다 마음 챙겨야

깨침도 한순간, 행·불행도 한순간

반면에 어떤 경우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인데도 호화호식하는 모습을 보여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장탄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자전거 패달을 힘껏 돌리고 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멈추게 된다.

선이나 약업도 각각 멈추는 시기가 있다. 멈추었을 때를 과보를 받는 시기가 보면 된다. 바퀴가 돌고 있는 모양만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이다.

현대의학에서 DNA의 무게를 밝혀냈다. 60억 인구의 DNA 무게가 쌀 한 톨의 무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가벼운 유전자가 각기 다른 인간 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실로 무서운 에너지가 아닐 수 없다. 선(禪)에서 한 생각이란 말을 자주 쓴다. 깨침도 한 생각 한 찰나의 일이고 행과 불행도 한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편차를 가져온다. 그러니 마음을 잡도리를 잘 하지 않으면 생각 생각은 요동치기 마련이다. 항상 마음을 챙기는 사람은 위와 있고 그 기풍이 남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 미얀마 연방 공화국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대표부 승격 한국주재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승격 새 롭 게 태 어 났 습 니 다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한국에서의 단 하나밖에 없는 미얀마 관광청과 문화원 대표부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관광청 장관과 문화부 장관의 인정서를 받고 보니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얀마 문화를 알리는 양국간의 교류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얀마 연방 공화국 호텔 및 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호텔 신축의 상담을 비롯하여 새로운 성지순례 코스의 개척 으로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성스러운 곳이 많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전국 각종단과 불교 단체 큰스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성지순례에 따른 설명회와 각종 불교 행사 및 봉사활동, 인간방생 법회 등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설명회를 자주 가지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성실하게 설명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문화원 : 02)733-5665. 관광청 : 02)733-5670 팩스 : 02)733-5671

타 단체 및 여행사에서 한국내에서 미얀마 관광청 및 관광청 대표부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